

퇴임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넥신은 1999년에 포스텍 생명과학과 실험실내 벤치 2개와 투자금 5,000 만원으로 작게 시작하였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지금은 이렇게 10,000평이 넘는 신사옥과 130명의 임직원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신약 Pipeline들도 임상 3상까지 진입한 Late-clinical stage biotech company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그리고 제넥신 임직원들이 그동안 신약 개발에 all-in하여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치 환자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첨단 신약을 직접 개발해 보겠다는 꿈”에 도전하기 위해 박사 학위 후 대학교수의 길보다는 제넥신이라는 벤처기업에 들어와 지금까지 저랑 동고동락을 같이 해온 여러 저의 실험실 제자들과 제넥신 임직원 여러분의 덕택으로 오늘 이렇게 제넥신이 존재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 R&D 바이오 벤처기업을 세우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누구나 죽음의 계곡이라는 death valley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제넥신도 예외 없이 지난 23년 동안 이러한 death valley를 통과하는 어려운 시기가 여러번 있었고, 그때마다 제넥신의 꿈과 열정 그리고 저희들의 미래 기술을 믿고 재무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해 주신 여러 은인들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갑자기 제넥신을 퇴임 한다고 발표 했을 때 주위에 많은 분들의 반응은, 왜 그만두려고 하는지? 제넥신을 지난 20년 넘게 온갖 고생해서 이만큼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아깝고 섭섭하지 않느냐 ? 드라마나 언론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기업의 경영권을 서로 가지려고 싸우기까지 하는데 왜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포기하는지 ? 이해가 안 간다고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저의 대답은 2021년인 작년이,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제가 모든 것을 내려 놓고 퇴임을 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시기”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넥신 입장에서 보면 작년이 1) 첨단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2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 하면서도 운영을 잘했다기 보다 운이 좋아 회사 자산이 5,000억이 넘고, 신사옥도 가진 중견기업이 되었고 2) 관계사만도 미국 NASDAQ 상장사 2개, KOSDAQ 상장사 3개, 비상장사 11개를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형성하였습니다. 3) 또한, 작년이 R&D biotech company의 수준을 넘어 개발한 파이프라인들의 상용화도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의 제넥신으로 변신해야 하는 즉 “제2의 도약” 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로켓이 서너 개 필요한데 1단 로켓은 대기권까지 올려놓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2단 로켓이 점화하여 우주선이 우주로 날아 갈 수 있듯이, 나의 역할은 우주선의 1단 로켓과 같이 제넥신을 일정 궤도까지 올려놓는 것이 과학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넥신이 제 2의 도약을 위해서는 경영자의 mindset을 가지고 글로벌 수준의 전문 경영인이 기업을 운영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오랜 기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본이 과학자인 제가, 창업하여 성장기반을 잘 만들었다고 해서 즉 “내가 가장 많이 알고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집착, 좋게 얘기해 애착” 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과학자의 mindset로 회사를 운영하면 제넥신이 앞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데 오히려 제가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제넥신은 첨단 신약 개발이라는 꿈을 달성하기 위해 성공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과감히 도전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패를 해도 이를 용인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끝장 정신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쌓은 경험들을 “무형 자산”으로 인정하는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넥신의 이러한 꿈을 향한 도전 정신을 계속 지속 시킬 수 있을 뿐아니라, 한 단계 더 UPGRADE 시키는 것이 앞으로 제 2의 도약을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엔진중 하나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고, 최고 경영자로서의 잠재력과 능력을 이미 인정받은 대표이사가 있다는 것이 제가 퇴임하겠다고 결정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미국에서 글로벌 기업과 벤처기업에서 경험이 많은 사장이 각자 대표이사로 제넥신에 합류하였기 때문에, 이 두

대표이사가 함께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여 제넥신이 세계 시장에서 빛날 수 있는, 우수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아갈 것으로 저는 확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넥신의 미래는 매우 밝고 지금 보다 훨씬 더 크게 발전하여 바이오텍 sector에서 인정받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기업, 그리고 난치성 환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업”으로 더욱 거듭 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유한과 같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한국 바이오 기업의 role model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제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작년이 제가 제넥신을 설립한 이유인 “DNA 백신 기술로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신약을 개발” 해 보겠다는 미션을 운 좋게도 달성한 년도이기 때문입니다. 제넥신 이름은 Gene vaccine에서 지어진 것으로 핵심 기술이 DNA백신 기술로, 이러한 차세대 백신 기술을 이용해 블록버스터 첨단 신약을 개발 하겠다는 꿈을 갖고 세웠습니다

이번에 mRNA가 코로나 팬데믹 덕택에 예방 백신으로 약이 되어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상용화 되었는데, 지난 30년 가까이 저는 RNA 대신 DNA를 약으로 만들고자 하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해온 덕택에 최근 자궁 경부암 환자에서 DNA를 이용한 GX188E라는 치료 백신으로 치료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임상 연구 결과를 약 6분 정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GX-188E DNA 백신으로 예방보다는 치료의 개념으로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 옵션이 없는 재발 되고 여러 군데 전이된 희망이 없는 환자 (hopeless patients)에서 치료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제품화하기 위한 조건부 허가를 현재 준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idea를 내고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bench to clinic 까지, 실제로 환자에서 안전성과 치료 효능을 입증하면, 과학자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Genexine이라는 기업을 세우고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를 떠나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 보는 시야에 따라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러한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퇴임 후에도, 제가 idea를 내어 시작한 신약 후보물질들에 한해서는 상용화가 될 때까지 기술 고문겸 자문 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책임감 있게 완전한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제넥신 임직원,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40년 전 제가 유학을 가서 생명공학 박사학위를 하고자 했을 때는 성공은 보장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꿈은 “난치성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것이 저의 소망이자 희망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정리해 보니 대학 실험실 벤처기업인 제넥신까지 설립해 대표이사, 회장까지 하면서 여기 계신 제넥신 임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함께 일 할 수 있는 천운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진심으로 다함께 감사드리고 싶고 마지막까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